

증거기반 역사서술을 통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사의 재해석*

차 경 미

(울산대학교 연구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관련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여 증거기반 역사서술 관점에서 한국전쟁 참전사를 재해석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군사사와 외교사 중심으로 전개되어 파병결정과 군사작전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데 기여했으나 전쟁경험의 사회적 의미와 기억 형성과정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콜롬비아의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있는 한국전쟁 참전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다층적 사료구조를 구축하고, 기록물의 생산배경과 맥락 그리고 담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콜롬비아의 국가기관, 언론, 참전용사단체 및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국전쟁을 콜롬비아의 파병경험과 연결된 역사적 과정으로 재구성을 시도했다.

주제어 : 콜롬비아, 한국전쟁참전, 기록물, 수집분석, 역사재해석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6006871)

1. 머리말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다.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의 우호 관계의 기반은 그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참전 군인들의 경험은 콜롬비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인식 형성에 기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콜롬비아는 여전히 실질적인 우호국으로서의 관심과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비대칭 속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연구는 보훈의 의미를 넘어 양국의 역사 및 관계기반을 재조명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한국전쟁사 연구에서 콜롬비아의 참전경험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국내 한국전쟁사 연구는 주요 참전국인 미국이나 영국 혹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콜롬비아에서도 한국전쟁 참전관련 연구는 현대사의 주요 주제인 비올렌시아(Violencia:정치폭력사태)연구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비올렌시아 시기 주된 연구는 국내 정치적 갈등 요인에 집중되었으며, 한국전쟁의 참전경험은 정치사 외부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장기내전, 좌익 불법무장 세력의 조직화, 국민의 보수화 그리고 극우정권의 성장 및 최초의 좌파정권 등장과 같은 일련의 콜롬비아 현대사는 한국전쟁 참전의 동기 및 영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콜롬비아 현대사 규명에 있어서 한국전쟁 참전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물 분석에 기반한 역사서술은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있다. 한국전쟁은 역사상 최초의 UN다국적군이 개입한 국제분쟁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록물의 분량 또한 방대하다. 그러나 비주류 참전국인 콜롬비아 관련 기록물은 관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관련 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지속 가능한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일시

적 기념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기록물은 역사적 증거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기록물은 역사연구에서 요구되는 다각적인 해석의 필요성 그리고 기록이 지니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콜롬비아의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한국전쟁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록물의 맥락과 담론을 분석하여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사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발발부터 휴전협정 체결시기 동안 콜롬비아에서 국가 및 기관 또는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한국전쟁을 콜롬비아의 파병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참전의 정치적 결정, 집단적 기억 그리고 개인적 체험이 중첩된 역사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사 연구에서 주변화되었던 콜롬비아의 참전사를 복원하고, 기존의 한국전쟁사 연구의 지리와 학문적 영역을 확장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가 콜롬비아 현지의 모든 기록물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사 속에서 콜롬비아의 역사적 위치를 재정립하고, 국제정치적 맥락과 개인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다층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I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해외 기록물 연구에서 ‘기록’을 지칭하는 용어가 기관의 성격과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에 대한 학문적 관점과 분석 목적의 차이를 반영한다. 학문적 접근방식은 상이하지만, 기록물을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즈(archives)와 매뉴스크립트(manuscripts)로 구분한다. 시어도어 셀렌버그

(1956)에 의하면 아카이브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서, 행정적 기능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반면 매뉴스크립트는 개인이 생산한 문서, 증언 기록, 회고록뿐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수집된 문서 군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기록물의 생산 주체와 구성방식의 차이를 반영하며, 동시에 분석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제임스 오톨과 리차드 콕스(2006)는 아카이브즈가 국가 및 제도 중심의 공식 서사를 구성하는 반면, 매뉴스크립트는 개인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한 비공식 서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식과 비공식 서사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위해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기록물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관련 초기 기록물은 주로 참전 지휘군인을 중심으로 생산되었다. 이들은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주의적 시각과 군사 엘리트 관점을 반영한 저술들을 출간했다. 전 국방장관 루이스 노보아(1956)장군, 발렌시아 토바르(1992)장군, 푸야나 가르시아(1993)와 가이세도 몬투아(1961)대령은 한국전쟁의 군사작전, 전투배치, 사상자 현황, 전투과정, 지휘경험 그리고 참전의 외교적 함의까지 포괄하는 군사 중심의 저서를 출판했다. 이러한 출판물은 국가영웅서사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아테오루투아 크루스(2015)는 한국전쟁을 냉전 구조 속에서 분석했으며, 콜롬비아의 참전을 미국과의 동맹 강화, 국제적 위상확보 및 군사원조 획득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차경미는(2006)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의 정치 및 대외적 배경 분석을 통해 콜롬비아 정부의 파병결정은 국제 정치적 맥락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정당성 확보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했다. 또한 브레들리 린(2005)은 미군과 콜롬비아군의 군사기록을 활용하여 전투경험, 연합군 협력구조 그리고 전투수행 능력평가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여 콜롬비아군의 전투역량 형

성과 미군과의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2000년대 접어들어 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은 해외 기록물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승휘(2006:25-46)에 의하면 초기에는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이후 역사적 가치를 지닌 해외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전쟁 관련 해외 기록물 수집,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참전용사의 개인 경험과 기억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구술사와 문화기억을 연계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폴 톰슨(2004)외에서는 전쟁기억이 가족과 후손을 거쳐 집단기억과 문화기억으로 전승되며 이러한 기억의 전승은 전쟁경험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적 기억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콜롬비아에서도 발렌시아 토바르(2001)외 그리고 멜렌데스 가마르고(2015) 등 일부학자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의 경험과 기억을 역사적으로 복원하려는 구술사 연구와 문화기억 연구가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 경험과 집단기억의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관련 기록물은 군사, 외교, 정치 및 기억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기록물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역사서술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국가기관 기록과 개인기록을 교차 분석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전개되었다. 더욱이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국립도서관조차도 한국전쟁 참전관련 기록물의 증거적 가치를 위한 근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사 연구의 사료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구술사 연구의 기초 사료로 활용하여 기억과 서사 연구로의 확장 가능한 토대마련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2. 연구방법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관련 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기록물의 학문적 그리고 증거적 가치를 기반으로 역사적 서사를 재해석하는 증거사학 접근이 요구된다. 김기봉(2018: 268-275)에 의하면 증거사학 분석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기록물의 비판과 맥락적 해석을 포함한다. 또한 기록은 역사적 서사와 논증의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적 경험 및 공식 서사를 통합한 다층적 역사를 재구성한다. 김택현 역(2002:21-45)은 증거사학이 역사적 서술의 근거를 1차 자료에서 찾고, 기록물의 출처 및 작성의도 그리고 담론적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통해 사실성을 확보하는 연구방법론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증거사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동안 콜롬비아의 기관이나 개인이 생산한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기록물의 담론과 맥락을 분석 할 것이다. 이시기는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파병결정, 전투수행 그리고 귀환과 사회복귀 등 콜롬비아의 정치, 외교 및 사회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시기로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한다.

수집대상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민간 및 개인기록을 모두 포함하며, 공식문서, 신문, 회고록 같은 1차 자료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연구서, 문학작품 등 2차 사료까지 포괄한다. 공식문서는 정책결정과 전투수행 과정의 공적서사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며, 신문 등 언론자료는 국내 여론과 정치적 쟁점파악의 핵심 사료에 해당한다. 개인수기, 회고록, 편지 및 사진 등 개인기록물은 전투경험, 생존전략 그리고 귀환 이후의 사회적 적응 및 정체성 변화와 같은 공식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문화적 층위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학술논문 및 연구서는 콜롬비아 참전의 대내외적 맥락을 재해석하고 기존연구 검토 및 1차 사

료와 교차분석에 활용한다.

수집한 기록물은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파병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파병검토, 정부정책 결정, 파병 및 현지임무 수행 그리고 임무종료 및 귀환 등 4단계로 분류한다. 파병검토단계는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요청을 계기로 콜롬비아 내에서 파병의 필요성과 잠재적 국익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시기이다. 정부정책결정단계는 의회에서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고, 정당 간 갈등과 대외전략이 수립되며, 국회에서 파병이 공식 승인된 시기이다. 현지파병 및 임무 수행단계는 전투현장과 임무수행이 전개된 핵심시기로 참전부대 조직구성, 임무, 병참, 의료 및 주요전투와 작전 관련기록이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또한 전투경험, 전술, 생존전략, 전우애 등 개인적이고 집단적 경험의 기록도 포함되어 공식기록과 개인경험이 동시에 확인 가능한 단계이다. 임무종료 및 귀환단계는 전후 상황을 반영한 파병종료 이후의 기록과 철군과 귀환 및 사회적 관련 기록을 포괄한다. 이러한 단계별 기록물은 파병과정과 관련된 담론 분석의 기준이 되며, 시기별 특성에 따라 기록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계별 분류는 단순한 연대기적 분류가 아니라, 기록물의 생산맥락과 기능적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활용된다.

테리 쿡(1997:17-63)에 의하면 기록물 분석은 기록물의 출처, 맥락 및 담론분석 그리고 교차검증과정을 통해 전개된다. 기록물의 출처는 기록물의 작성시점, 생산주체, 작성목적 및 보존경로 등을 검토하여 신뢰도와 사실성을 평가한다. 맥락분석은 콜롬비아의 양당갈등, 미국의 요청 그리고 국민여론 등 기록물이 생산된 정치, 외교 및 군사적 환경을 고찰하고, 기록물을 당시의 구조 내에서 해석한다. 담론분석은 기록물의 서사 및 의미부여 방식을 통해 국가중심 서사, 개인과 집단경험의 서사, 군사적 영웅담 그리고 외교적 정당화를 식별하여 기록물의 간극을 파악한다. 교차검증은 동일사건에 대한 공식문서와 비공식 기록을 비교하여 공식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의 정확성과 정치적 편향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자료를 통해 정치, 외교 및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경험과 기억을 종합하여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의 역사적 구조와 맥락을 재해석한다.

로버트 인(2018:126-145)은 사례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상호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존 토시(2015:164-187)는 역사연구에서 단일 사료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료비판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공식기록물의 정치적 편향가능성 그리고 개인경험을 강조하는 주관성과 왜곡을 고려하되 다양한 기록물 확보로 균형 있는 관점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기록물의 교차검증을 통해 편향성을 보완하여 사건 재구성의 신뢰성 확보할 것이다.

Ⅲ. 한국전쟁 파병 단계별 기록물 분석

1. 한국전쟁관련 기록물 현황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은 라틴아메리카 유일의 파병사례라는 점에서 관련기록물도 외교, 군사, 언론 그리고 개인기록 등 서로 다른 목적과 맥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은 단일한 콜롬비아의 국가 기록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국가기관, 군사기관, 참전단체, 개인 및 가족 단위로 분산되어 보존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연구의 상대적 소외는 국가기관 기록물의 접근제한, 기록물 목록체계의 미비 그리고 일부 자료의 유실과 결합되어 역사적 기억의 공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전쟁 파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교부와 국방부 기록물은 상당수가 소실되었으며, 특히 1958년 로하스 피니야 군사정권(Rojas Pinilla:1953-1958) 시기 기록물의 기관 간 이전 과정에서 분산 및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것은 정치전환기에 발생한 기록관리 공백이 역사인식의 단절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소장기관

기관명	기록물 접근성	기록물 형태	한계점
ASCOVE	부분허용, 비정형	참전일지, 전사, 실종, 포로기록, 구술	체계미비, 구술어려움
해군참전용사회	부분허용, 비정형	해군인원명부, 회고록	관리체계화미비
국립도서관	공개, 디지털	신문원본	신분자료 중심
국가기록원	열람제한	외교문서	분량한계, 전후문서중심
육군사관학교	열람제한	사진, 연구물	접근제한
해군박물관	현장열람	전시기록	전시, 사진중심
ADEVECO	개인소장	사진, 편지, 유물, 출판물	사적소장, 공개기피

출처: 저자작성

기록물 수집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ASCOVE(Asociación Colombiana de Veteranos de la Guerra de Corea), 해군참전용사회(Asociación Veteranos de la Infantería de Marina en la Guerra de Corea),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국가기록원(Archivo Nacional), 콜롬비아 육군사관학교(Escuela Militar de Cadetes “General José María Córdova), 카르타헤나 해군박물관(Museo Naval de Cartagena) 그리고 참전용사후손회 ADEVECO(Asociación de Descendientes de Veteranos de la Guerra de Corea)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기록물들의 생산주체와 기능에 따라 상이한 유형의 사료를 보유하고 있다.

ASCOVE는 1958년 12월 20일 수도 보고타(Bogotá)에서 형성되었으며, 파병부터 임무종료 및 철군단계 전반에 관한 핵심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회원은 1951년 6월~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

인과 1954년 10월 말~1955년 10월까지 한국 경비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회원 수는 약 280명이며, 팬데믹과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는 급감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생존참전용사는 약560명으로 파악되었다. ASCOVE의 기록물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소멸위기에 놓인 기억을 보존하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카리브 해 연안 중심도시 카르타헤나(Cratagena de Indias)에 위치한 해군 참전용사회는 빅토르 누녜스(Victor Nuñez Gamaz)회장이 자택의 서재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생존한 참전해군은 31명이다. 빅토르 누녜스는 육군참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콜롬비아의 해군 참전사에 관한 사료들을 복원하고 있으며, 공적 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기록물 대부분이 개인 소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서 접근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전쟁을 지상전 중심의 전쟁이 아닌 해상봉쇄, 호송, 포격지원이 결합된 복합적 전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 군을 형성한다. 또한 기록물은 파병부대 바타온 콜롬비아(Batallón Colombia)중심의 참전사를 보완하여 냉전 초기 콜롬비아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립도서관은 한국전쟁 당시 발행된 신문과 잡지, 마이크로필름 및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당시 언론 보도는 콜롬비아 사회의 여론과 담론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사료로서 정책결정, 파병과정, 전투임무 등 참전 배경 및 국내여론과 정치적 편향성 분석에 토대가 된다. 도서관 내 신문자료실(Hemeroteca)은 한국전쟁을 둘러싼 사회인식, 감정 및 정치적 입장을 추적할 수 있는 1차 사료의 집합소이다.

국가기록원은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생산된 외교, 군사보고서, 행정명령서등 공식 문서를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기록은 파병결정 및 작전기록 등 신뢰성 높은 사실을 제공하지만 정치목적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현지조사결과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

국전쟁관련 기록물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목록체계 또한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1950~1953년 한국전쟁 시기의 핵심 기록물 상당수가 유실되었고,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기록물들은 한국전쟁 이후 외교 문서에 집중되어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기록물은 주로 연구서, 증언록, 특수자료 및 시청각 자료이다. 기록물에 대한 열람과 복제는 제한적이며, 소장사료와 기록물의 목록파일은 외부공개가 불가하여 기록물의 세부적인 현황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군박물관의 경우 전시실 운영을 통해 한국전쟁에 파병된 프리깃함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기록물은 주로 사진, 지면, 도면, 포스터 등 전쟁 당시 연합해상작전 당시 해군모습, 전투현장 상황, 전투위치 그리고 규모를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작전 기록도 전시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해군이 한국전쟁에서 경험한 무기와 군 장비 전시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¹⁾. 그러나 해군박물관의 기록물 대부분이 전시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록물 접근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

ADEVECO의 기록물은 편지, 사진, 훈장, 전쟁용품 등 참전군인의 개인기록과 유물기록이 중심을 형성하며 개인단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공식기록에서 파악되지 않는 개인 및 가족의 경험과 기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사적 분석의 중요한 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물이 가족의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공개를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 수집의 어려움이 따르며, 무엇보다도 후손들과의 친분 및 신뢰 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콜롬비아의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한국전쟁관련 기록물들은 생산주체와 목적에 따라 상이한 성격과 형태를 지니고 있다.

1) 콜롬비아의 카리브 해 연안 중심지 카르타헤나에 위치한 해군박물관 전시관에는 주로 20mm 대공 해군기관총 “OERLIKON”, 한국전 3.5인치 m20 로켓 발사기 ‘슈퍼 바주카’, M-1 카빈, 한국전 M20 소총 75mm ‘탱크 킬러’, 가란드 M-1 반자동 소총, 한국전 콜롬비아 해군소총 그리고 중군군과 북한군이 사용한 슈파긴 PPSH 41등 다양한 무기사진과 사용법이 전시되어 있다.

2. 단계별 기록물 분석

기록물은 특정 시기의 정치적 조건, 제도적 구조 그리고 개인적 경험이 결합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사의 실증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지의 기관 및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한국전쟁을 콜롬비아의 파병을 기준으로 파병검토, 정책결정, 임무수행 그리고 임무종료 및 귀환단계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기록물의 맥락과 담론을 분석한다.

〈표. 2〉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단계별 기록물 유형

구분	시기	주요 생산 주체	기록물 유형	내용 범주
파병검토 1950.06~ 1950.09	미국참전요청, 파병검토	외교부, 국방부, 언론	외교문서, 언론기사 개인 메모	파병필요평가 국내정치 갈등 대미관계, 여론
정부정책결정 1950.10~ 1951.10	파병결정, 국회승인	국방부 외교부 주요 언론	정책결정문 군사작전문 언론 보도	파병결정 논의 외교전략
파병, 현지임무수행 1951.11~ 1953.07	전투, 작전 등 실질 임무	육군, 해군 참전군인, 주요언론 보도	전투보고서 일기, 편지, 사진, 언론	전투,작전수행 사상자, 전황변화
귀환 및 전후 기억형성 1953.07~ 이후	귀환후평가, 기억, 담론형성	참전용사회, 가족 및 유족, 언론, 출판, 국가기념사업	회고록, 증언, 전후보도, 사진, 후속정책문	전후인식평가 참전경험기억, 영웅화, 국가담론, 보훈정책

출처: 저자작성

2-1. 파병검토단계: 1950년 6월 25일~1950년 9월

파병검토 단계는 파병의 정당성과 국내정치 및 외교 담론의 재구성

시기로 기록물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콜롬비아가 파병여부를 검토하던 초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한다. 이 시기는 파병이전 국제정세와 국내정치 동향 등 당시 정치 및 외교사적 분석의 주요 지표로서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미관계의 외교적 접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다. 한국전쟁 발발직후 미국은 UN회원국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청은 콜롬비아 정부가 파병여부를 검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 기록물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요청 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한 전략 및 초기반응을 확인하고, 파병의 필요성과 잠재적 국익에 대한 논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 군을 형성한다.

기록물은 국립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간지, 시사주간지와 월간지, 정부법령, 대통령령 그리고 의회결정 공식기록 관보인 디아리오 오피시알(Diario Oficial)을 포함한다. 당시 주요 언론은 한국전쟁 발발속보, UN 결의 및 미국요청보도, 콜롬비아의 파병가능성 논쟁, 반공주의 담론형성 그리고 국제연대 등 한국전쟁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했다. 파병검토 과정은 주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경우 국가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반공담론과 대미외교 전략 분석을 위해 당시 발행된 주요 언론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콜롬비아의 주요 일간지들은 한국전쟁을 소련의 지원 아래 남한의 적화를 시도한 공산세력의 팽창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3차 세계대전 확대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질서 확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수계 일간지 엘 시글로(El Siglo), 에코 나시오날(Eco Nacional) 그리고 자유계 일간지 엘 티엠포(El Tiempo), 엘 에스펙타도르(El Espectado)는 한국전쟁에 대한 사실전달을 넘어 반공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대미외교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에코 나시오날(1950.11.23)은 사설에서 반공주의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엘 에스펙타도르(1950.7.3)는 한국전쟁이 미주대륙 안보와 직결된다는 위기의식을 표명했다. 당시 주요 언론

들은 냉전 초기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한국전 개입은 냉전전략 형성과정의 지역정책으로서 타당하다는 관점을 유지했다.²⁾ 따라서 언론은 미주지역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콜롬비아의 책임이행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참전을 촉구했다.³⁾ 이와 같이 언론들은 한국전쟁을 미주대륙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재구성함으로써 파병논의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언론은 당리당락에 기초하여 국제정세를 평가하고, 한국전쟁을 국내정치의 연장선에서 홍보했다. 라우레아노 고메스정권(Laureano Gómez:1950.8.7~ 1951.11.5)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한 엘 씨글로는 한국전쟁을 국내 불안정한 정치상황의 연장선에서 해석했다. 엘 씨글로(1950. 6.29)에서는 국내 반정부운동을 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적 팽창과 동일시하며 반공주의를 통치이념으로 강조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확산된 반공주의 담론은 국내 정치적 갈등과 결합되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반공주의는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억압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진보적 이념이 출현하는 것을 제약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반면, 엘 티엠포(1950.7.6)와 엘 에스펙타도르(1950.6.25)는 한국전쟁의 대응방식에서 UN의 역할과 집단안보체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개입보다는 다자적 협력을 통한 공동방위체제를 강조했다. 또한 엘 에스펙타도르(1950.8.21)는 미국의 세계 공산주의 대응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개입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엘 티엠포(1950.7.7)는 색깔론을 전개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보수 세력을 비난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내 인플레이션상

2) 이러한 내용은 El Siglo, 26 de junio de 1950; Eco Nacional, 17 de diciembre de 1950; El Tiempo, 22 de octubre de 1950; El Espectador, 9 de septiembre de 1950; El País, 19 de octubre de 1950의 사설 그리고 시사주간지 Revista Semana 12 de Agosto de 1950 국제이슈평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당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의 대외명분을 강조한 대표 언론 사설은 Eco Nacional, 1 de julio de 1950; Eco Nacional, 4 de agosto de 1950; El Tiempo, 26 de diciembre de 1950; El Tiempo, 7 de julio de 1950등이다.

승과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⁴⁾

1950년 6월 29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콜롬비아 정부는 공산주의 위협을 국내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며 한국전쟁 개입의 당위성을 표명했다. 엘 티엠포(1950.6.30.)와 에코 나시오날(1950.11.3.)은 대통령이 신속한 외교대응으로 미국의 헨리 트루먼 대통령(Harry S. Truman:1945-1953)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한국전쟁 참전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콜롬비아 의회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전쟁 파병여부를 검토했다. 파병관련 정책방향은 외교 엘리트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1950년 7월 27 외교부장관 에바리스토 소우르디스(Evaristo Sourdis)는 엘 씨글로를 통해 인도주의적 대외명분을 강조하며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개입을 공식화했다

외교적 결정은 군사실행 단계로 이어졌다. 당시 전쟁부장관 우르다네타 아르벨라에스(Urdaneta Arbeláez)는 콜롬비아의 참전결정이 군사적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엘 씨글로(1950.9.21.)와 엘 파이스(1950.10.22.)는 전쟁부장관이 1950년 9월 18일 해군 파병계획을 UN에 서한으로 공식 전달함으로써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을 군사적 실행단계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1951년 대통령이 건강악화로 사임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승격한 우르다네타 아르벨라에스는 1953년 6월까지 군사와 안보정책을 주도하며, 반공주의 대외정책을 기반으로 한국파병 계획을 수립했다. 엘 리베랄(1950.10.3.)은 콜롬비아 정부의 파병결정은 군사조직화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역사상 최초로 콜롬비아 해군의 해외파병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콜롬비아의 대미 외교정책과 한국전쟁 참전결정 과정에서 주미 대사 술레타 앙헬(Zuleta Ánge)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보수언론 에코 나시오날(1950.11.15.)은 주미대사가 한국전쟁을 집단안보체제의

4) 한국전쟁 발발직후 특히 자유당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내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El Tiempo, 14 de julio de 1950; El Tiempo, 25 de julio de 1950; El Liberal, 12 de noviembre de 1950.

시험대로 인식하고, 콜롬비아의 참전입장을 미국과 UN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콜롬비아의 참전결정을 국제적 규범과 연계하여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대사는 한국전쟁 참전이 미주지역 내에서 콜롬비아의 외교적 위상을 확립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국내에서 형성된 반공주의 노선과 대미협력전략을 국제적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외교담론으로 발전했다. 미국의 역사학자 램시 러셀(1967:541-560)은 한국전쟁 참전이 UN집단안보체제의 이행국가로서 콜롬비아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국과 정치 및 군사협력 확대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⁵⁾

정당차원에서도 한국전쟁 참전문제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유당은 파병의 외교적 의미보다 국내정치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동일한 반공주의 담론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활용되었다. 양당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참전여부를 검토했지만,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한 보수 언론과 달리 자유계 언론 엘 에스펙타도르(1951.5.31)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와의 동맹이 군사협력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엘 티엠포(1950.7.2)는 한국전쟁이 커피가격상승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도하고, 디아리오 데 콜롬비아(1953.2.12.) 역시 한국전선에서 콜롬비아군의 쌀 소비증가는 국내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며 대외정책에서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균형을 강조했다.

5) 램시 러셀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콜롬비아의 외교적 입장을 비교분석한 논문 “The Colombian Battalion in Korea and Suez.”,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9, no. 4 (October 1967), 541-560. <https://doi.org/10.2307/164859> 를 출간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초기 연구 중 가장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이후 그는 1981년 콜롬비아 군대의 형성, 비올렌시아와 게릴라 운동의 등장 및 군의 대응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단행본 *Guerrilleros y Soldados*, Bogotá: Ediciones Tercer Mundo를 출판하여 콜롬비아 현대사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미국은 미주지역 상호군사협력을 강조한 반면, 라틴아메리카지역은 경제협력과 한국전쟁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냉전 초기 라틴아메리카지역이 직면한 집단안보체제와 경제발전 요구 사이의 긴장이 반영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병검토 단계에서 언론은 한국전쟁을 이념적 갈등으로 해석하며, 반공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보수언론은 참전을 국제적 책임과 반공연대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자유언론은 동일한 반공 담론을 공유하면서도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균형을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은 한국전쟁을 이념대결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국내 정치질서와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결합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2-2. 정부정책결정단계: 1950년 10월~1951년10월

정부의 정책결정 단계는 한국전쟁 참전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며 파병결정의 제도적 근거가 형성된 시기이다. 파병결정 과정의 출발점이자 정책결정의 공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서 국내정치적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는 기록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록물은 국회회의록, 외교부 및 국방부 정책문서, 파병명령서 초안, 대통령 및 각료 성명서 그리고 언론사설과 정치논쟁 기사 등이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기록 수집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국가기록의 결락과 접근제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결정과 정책 그리고 군사 안보관련 보도를 담당하는 디아리오 오피시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간지, 참전용사회 기록 및 개인 회고록으로 기록의 결손을 보완해야만 했다.

또한 외교부 및 국방부 정책문서를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의 경우 확인 가능한 1950-1953년 당시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은 총 6건에 불과했

다.⁶⁾ 문서 내용은 UN이 콜롬비아 외교부에 발송한 연합군 훈장수여자 선정방식 및 규정, 훈장외형 그리고 훈장규격과 관련 있다.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쟁관련 기록물 대부분이 1956~1965년 전후에 생산되었으며, 주로 한국정부와 주미 콜롬비아 대사관이 콜롬비아 외교부에 발송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내용이다.⁷⁾ 이러한 기록공백은 의도적 폐기보다는 정치적 격변과 행정 구조문제 그리고 기록관리 제도미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⁸⁾

한편, 콜롬비아에서 한국전쟁은 동일한 반공주의 담론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는 이념의 선택적 활용도구가 되었다. 보수언론 에코 나시오날(1951.4.24; 1952.7.5)은 국내에서 확산되는 반정부 세력의 약화와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강화 도구로 한국전 참전을 홍보했다. 반면 자유계 언론 엘 티엠포(1952.2.6)는 반공주의와 집단안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수당의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급진세력언론 호르나다(1951.1.21)는 공산

6) Archivo Nacional에서 관리하는 한국전쟁관련 외교문서 :

QUINTO PERIODO DE SESIONES :PRIMERA COMISIÓN, 29 de septiembre de 1950; To: STAVROPOULOS, PUSAN, 13 de julio de 1951; COMMENTS RECEIVED FROM UNIFIED COMMAND, 24 de julio de 1951; PROYECTO REVISADO, 30 de julio de 1951; REGULATIONS UNITED NATIONS SERVICE MEDAL KOREA, 17 de septiembre de 1951; UNITED NATIONS SERVICE MEDAL REGULATIONS 25 de septiembre de 1951.

7) Archivo Nacional에서 관리하는 한국전쟁 및 한국관련 외교문서는 1956년 12건; 1957년 22건; 1958년 13건; 1959년 3건; 1961년 2건; 1962년 2건, 1963년 10건; 1965년 2건 등 총 66건이다.

8) 1948년 4월 보고타 사태(Bogotazo) 발생으로 정부청사와 주요 행정기관들이 약탈과 방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공공기록이 파괴되어 기록유산의 단절을 초래했다. 20세기 중반 국가기능의 확대로 기록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보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했다. 따라서 다수의 문서는 정리되지 못한 채 각 기관 내부에 누적되어 방치되었다. 또한 1950년대 콜롬비아 정부 차원의 통합기록관리 시스템은 부재했고, 1989년 법률 제80호를 통해 재정비된 이후 본격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AGN), 2006 그리고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AGN), 2016를 참조한다.

주의 확산원인이 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 빈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은 콜롬비아의 반공주의 이념을 강화하고, 정파 간 국내 정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상징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반공주의 이념은 한국전쟁 파병의 정치적 의미를 축소했으며, 파병에 대한 반론기회를 제약했다. 파병결정 과정에서 양당은 국민여론 수렴이나 민족주의 이념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실용주의 국익을 선택했다. 당시 의회는 비올렌시아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으며, 파병 문제는 미국의 요청과 행정부 중심의 외교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한국전쟁 참전결정은 형식적으로 초당적 지지로 추진되었다. 파병결정은 국민적 합의나 의회논의 보다는 대통령과 권력에 근접한 외교부장관, 주미대사 그리고 전쟁부장관 등 소수 엘리트에 의해 형성되었다.

엘 티엠포(1950.12.30)에 의하면 콜롬비아 정부가 1950년 법령 제3927호를 통해 한국전쟁 파병을 목적으로 소총대대, 중무장 보병부대, 전투지원 및 의무부대로 편성된 ‘바타온 콜롬비아’를 창설했다. ASCOVE의 파병부대 조직에 관한 문서(La Organización de Batallón Colombia:1-3)에는 1951년 5월 21일 1086명의 병력파병을 시작으로 1953년 7월 6일 까지 모두 4개 연대 약 5000여명의 병력이 한국전쟁에 동원되었다. 엘 씨글로(1952.3.31.)는 파병부대 ‘바타온 콜롬비아’가 1824년 독립전쟁당시 아야쿠초(Ayacucho) 전투에서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에게 승리를 안겨준 독립군의 명칭에서 유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보수 정권은 독립전쟁과 연결된 역사적 상징성을 차용하여 파병부대를 국가정체성과 결합된 사명으로 재구성했다.

한편, 1950년 12월30일 엘 티엠포는 파병준비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의 UN군 해상전력 지원을 공식화했다. 콜롬비아 해군(1993:214-220)은 단기간 실질적 전투가 가능한 함정선별 과정에서 원양항해능력, 장기간작전 지속성, 대잠 및 호위 능력을 기준으로 프리깃함 알미란테 파디아(ARC Almirante Padilla)를 선정했다. 선별은 기술 호환성과 보급체계 편입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해군체제와 유사한 장비를 갖춘 알미란테 파디아는 단기간 내에 표준화 및 개조가 가능했다

해군의 임무는 해상봉쇄, 수송선단 호위, 한반도 연안작전 및 항만포격이었다. 프리깃함의 개조는 미 해군 통신체제와 암호체제 도입, 영어 통신훈련, 연합작전교범 숙달 등 기술 및 제도적 재편이 병행되었다. 고메스 프리텔(2020:181-186)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은 콜롬비아 해군의 미국 중심 군사체로의 편입 그리고 작전교리 및 지휘체계 재구성의 전환점이 되었다.

‘바타온 콜롬비아’는 다양한 지역 수비대에서 전출된 병역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 발렌시아 토바르와 산도발 프랭키(2001:158)는 참전용사들의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미나 냉전구도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었으며, 참전동기 또한 정부가 제시한 반공주의 담론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은 자국이 라틴아메리카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역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¹⁰⁾ 이러한 인식은 정부가 형성한 UN회원국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외명분 서사가 내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3. 현지파병 및 임무수행단계: 1951년 11월~1953년 7월

파병 및 임무수행단계는 전쟁수행과 전투경험의 형성기로서 한국전쟁 참전관련 가장 많은 비중의 1차 기록물이 생산된 시기이다. 주요 기록물은 작전일지, 전투보고서, 포로명단, 전사 및 부상자 명단, 병참 및 의무기록 등 군사적 요소와 서신, 수기 그리고 전투사진 등 개인적 경험

9) 발렌시아 토바르와 산도발 프랭키에 의하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참전 동기는 정부가 제시한 반공주의와 국제적 임무수행이라는 대외명분 보다 생계유지, 사회적 이동 그리고 국내 폭력상황 탈출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10) 참전용사 Orlando Bernal Hernado Villegas, Guatavo Zapata, Francisco Bermudez와의 인터뷰(2018.08).

에 관한 기록이다. 특히 기존의 ‘바타온 콜롬비아’ 중심의 육군참전 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해군의 참전사는 항해일지, 작전명령서, 승조원 명부, 군사보고서 그리고 개인기록 확보를 통해 해상 작전의 구체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참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다양한 법령을 통해 전쟁수행과 관련된 정책을 제도화했다. 이러한 법령은 디아리오 오피시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1951년 5월30일 법령 0992호를 통해 자국군의 다국적 군 편입을 공식화함으로써 참전의 군사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이후 1952년 6월22일 법령 제1385호를 마련하여 UN총회 결의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를 규정함에 따라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이 국제법과 제도적 틀 속에서 정당화되었다. 1951년 8월28일에는 소비에트 영향권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법령 1802호가 발표되어 반공주의 외교정책이 경제와 통상 영역까지 확장하고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

엘 티엠포(1951.6. 25)는 1951년 5월 21일 ‘바타온 콜롬비아’가 태평양 연안의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항에서 미군 수송함정 아이켄 빅토리(Aiken Victory)호에 승선하여 한반도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부산까지 약 26일 소요되는 항해 동안 참전용사들은 미군지휘이래 무기운용, 전술 훈련 그리고 정신교육 등 준비훈련을 수행했다. 부산에 도착한 콜롬비아군은 미 제24 보병사단에 배속되었으며, 전선에 투입되어 순찰 및 방어를 중심으로 전투 및 경계 작전을 수행했다. 이후 1951년 10월 5일 엘 티엠포에 의하면 부대재배치 과정에서 콜롬비아군은 미 제7보병사단 예하에 소속되어 미군지휘체계와 포병 및 항공화력연계, 방어진지 운용 그리고 산악 및 고지전 전술에 적응하며 전투역량을 형성해 나아갔다.

콜롬비아군의 전투역량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아니었으며 엘 티엠포(1951.8.5)는 실전경험과 체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1951년 10월30일과 1951년 11월 9일 보도에 한국전쟁의 주요 작전지였던 산악지형과 겨울 혹한기 전투는 콜롬비아군에게 새로

운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양대 일간지 엘 티엠포(1951.11.3.)와 엘 씨글로(1953.1.24)는 이러한 환경적응이 콜롬비아 군 전투력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파병부대는 전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교체부대체제로 운영되었으며, 파병부대의 임무는 교체부대에 의해 지속되었다. 엘 티엠포(1952.2.8)는 1952년 1월 8일 7명의 장교와 143명의 교체 부대가 부산에 도착했고, 2월 20에는 부산을 출발한 교체부대가 콜롬비아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교체부대 투입을 통해 엘 티엠포(1951.10.30)와 에코 나시오날(1953.4.7)은 콜롬비아군이 연합군체계에 적응하며 전투 능력을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의 파병이 가시화된 1951년 기록물과 언론은 전쟁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했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는 엘 씨글로(1952.3.31.)와 에코 나시오날(1951.10.4)은 콜롬비아가 라틴아메리카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영수호에 기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엘 씨글로(1952.5.22; 1952.12.7)는 참전부대 지휘관 폴니아 푸요(Polania Puyo)대령과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참전군을 국가적 명예와 국제적 책임이행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영웅화 서사를 전개했다. 또한 언론은 연일 참전군의 희생을 보도하고 참전군의 애국심과 용맹성을 강조했다¹¹⁾. 이와 같이 언론은 전쟁초기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담론적 전략으로 기능했다.

1951년 10월24일 엘 티엠포는 전선투입 초기 순찰과정에서 파병부대 최초로 하사 다니엘(Daniel A. Hurtado)과 병사 올리베리오(Oliverio Cruz Herrerar) 그리고 파병부대 군가를 작곡한 부사관 엘리오(Helio de J. Ramos)의 전사소식을 보도했다. 사진과 결합된 전사자 보도는 개인의 죽음을 국가적 가치와 결합시켜 명예로운 행위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 1952년 전투관련 언론 보도는 감소한 반면, 엘 씨글로(1952.5.30)의 전사자 영웅서사는 증가했다. 또한 에코 나시오날(1951.11.15.)과 엘 티

11) 참전군의 영웅화 관련 내용은 El Siglo, 1952.7.23; El Tiempo, 1952.7.23; Eco Nacional, 1953.1.15; Revista Javeriana, 1952.7일자에 보도되었다.

엠포(1952.1.10)는 콜롬비아 독립군이 승리한 피친차(Pichincha), 아야쿠초 그리고 보야카(Boyacá) 전투의 역사성을 차용하여 파병부대를 국가 정체성과 결합해 나아갔다

‘바타온 콜롬비아’의 경험 중 가장 격렬했던 교전은 금성전투와 철원-금화 축선 고지전이다. 특히 몬테칼보(Monte Calvo 혹은 Old Baldy)전투로 불리는 철원-금화 고지전은 참호전, 포격전 그리고 야간공격이 집중된 고강도 전투였다. 콜롬비아군은 중공군의 집중공세에 대응하여 단기간 65명의 전사자, 97명의 부상자 그리고 9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후 실종자 가운데 일부는 포로로 확인되어 판문점에서 교환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사로 처리되었다. 언론은 전사자의 개인적 죽음을 애국심과 용맹성의 서사로 전환하여 국가적 차원의 희생으로 재구성했다.

국가와 언론이 전개한 반공주의 외교와 정치 및 사회적 조건 속에서 동원된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미보다 개인적 생존과 전우애 그리고 귀환 이후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51년 엘 에스펙타도르(1951.7.12)는 한 병사의 전선편지를 소개하며 전쟁에 대한 공포, 전우애 그리고 생존경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보도했다. 또한 돈을 벌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한국행을 택한 16살의 소년병 참전용사 이사악 바르가스(Isaac Vargas)는 전선에서 전우들의 편지를 대필하며 매일 어둠과 공포의 밤을 견뎌야만 했다¹²⁾. 주간지 엘 사바도(1950.9.9)는 고된 훈련, 비바람, 눈, 악천후 그리고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진 전선에서 보낸 병사들의 편지를 소개했다. 그러나 국가와 언론은 참전용사의 경험을 영웅적 희생과 국가적 명예라는 틀 속에서 재구성해 나아갔다.

콜롬비아 해군도 3척의 프리깃함이 시기별 교체 파병되어 유엔군 해군작전에 참여했다. 한국전쟁은 콜롬비아 해군의 국제연합작전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이었으며, 전쟁수행 능력의 단계적 발전 그리고 해군의 제도화 및 작전 현대화의 계기로 작용했다. 해군참전용사회 회장 빅토

12) 참전용사 Isaac Vargas와의 인터뷰(2018. 08)

르 누네스 기록(1997:7-8)에 의하면 파병준비시기인 1951년 4월 파병함정으로 선정된 알미란테 파디아는 연합군 편제통합 준비과정을 거쳐 미해군 제7함대 작전체계에 편입되었고, 5월 일본의 사세보(Sacebo)에 도착하여 UN해군 예하 서해 및 동해 연안에서 초계, 호위, 봉쇄 임무를 수행했다.¹³⁾

해군의 전투역량도 한국전쟁 파병 이전에 완성된 것은 아니며, 실전 운용과정에서 강화되었다. 해군은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최초의 장거리 원해작전을 수행했고, 해군작전은 육군과 달리 특정 전투에 집중하기보다 장기간 순환배치 속에서 전개되었다. 알미란테 파디아는 파병함정들의 작전 모델 및 표준 확립에 토대가 되었다. 1952년 6월 27일 엘 씨글로는 전투지속성과 작전속련도 확장을 위해 카피탄 토노(Capitán Tono)가 교체 파병되어¹⁴⁾ 해상봉쇄 지속, 연안포격 작전참여 그리고 군수 및 병력수송 보호 임무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1953년 전쟁 후반기에는 알미란테 브리온(Almirante Brión)이 전쟁 종료 직전까지 해상봉쇄, 정전협상시기 군사압박지속 및 기존 작전체계유지 등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¹⁵⁾

빅토르 누네스의 참전기록(1997:1-4)에는 1951~1955년까지 3척의 프리깃함이 교체 파병되어 총 925명의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설명했다. 참전결과 해상전투에서 전사자 131명, 부상자 374명, 실종자 69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28명의 교환포로가 발생했다. ASCOVE의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및 포로명단 기록에 의하면 육해군 포함 한

13) 빅토르 누네스 기록 “Tripulación de la Fragata ARC “Almirante Padilla en 1951”에 의하면 알미란테 파디아 승선 승무원은 전함지휘관 장교 2명과 전투함 중위 6명 포함 총 172명이다.

14) 빅토르 누네스 기록 “Tripulación de la Fragata ARC “Capitán Tono en 1952”에 의하면 카피탄 토노 승선 승무원은 전함지휘관 장교 2명과 전투함 중위 6명 포함 총 163명이다.

15) 빅토르 누네스 기록 “Tripulación de la Fragata ARC “Almirante Brión en 1953”에 의하면 알미란테 브리온 승선 승무원은 전함지휘관 장교 2명, 전투함 중위 5명 포함 총 258명이다.

국전쟁에 동원된 콜롬비아의 총병력은 5,100명이다. 이중 143명 전사, 사고사 10명 그리고 로렌소(Villamil Lorenzo), 베세라(Becerra), 씨후엔 페스(Cifuentes) 등 3명의 자연사가 발생했다. 참전기간 중 실종자는 총 69명이며, 송환된 포로는 30명으로서 송환되지 못한 포로들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 중 44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고로 162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여 한국전쟁 참전기간 중 부상자는 총 610명에 이른다.

〈표. 3〉 콜롬비아군의 한국전쟁참전 결과

분류	내용
사망자	전투중 사망: Hurtado Daniel Alfredo 중사, Ramos Henao Helio 원외의 129명
	사고사망: Guirama Montoya Ramón 원사; Macías Zapata José 병사의 8명
	자연사망: Villamil Lorezo 병사; Becera Cifuentes Enrique 병사
실종자	Barón Reyes Domingo 원사, Cabo Solarte Mario 원사 외 67명
포로	교환된 포로: Paredes Camargo 원사, Medina Francisco Alonso 중장 외 26명
	북한에 있다고 추정된 포로: Silva Rodriguez José 병사, Beltrán Garzón Juan 병사 2명
부상자	전투부상: Polania Puyo Jaime 중령, Acevedo López Hernando 대위의 402명
	사고부상: Vallejo Marin Edgardo 중위, Casanova B. Erasmo 중사의 159명
훈장 수여	미국훈장: Polania Puyo Jaime 중령, Espinel M. Nolasco 원사 외 49명
	임무수행 명예메달: Villagas R. Julio 중위, Andrade J. Jaime 원사 외 44명
	임무수행 명예훈장: Bustos Luis 원사, Pinilla M. Hernando 대위의 228명
	참전공로훈장: Lema Henao Bernardo 준위, Orozco Luis E. 병사의 104명

출처: ASCOVE 문서를 토대로 저자작성

한편, 1952년~1953년 콜롬비아 정부는 일련의 법령을 제정하여 한국 전쟁참전을 군사적 차원을 넘어 기억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념적으로 반공주의와 친미주의 성격의 레우레아노 고메스 정권은 한국전쟁 전사자 기념과 영웅서사를 통해 애국심을 고양하고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자원으로 다양한 법령을 활용했다. 디아리오 오피시알에 의하면 정부는 1952년 12월 16일 법령 제3064호를 통해 전사자에 대한 국가기념과 예우를 규정하여 전쟁경험을 기억과 보훈의 영역으로 제도화 했다. 그리고 1953년 3월6일 법령 제0421호를 마련하여 한국정부가 수여한 훈장을 공식적으로 승인 수용함으로써 참전의 국제적 상징성과 외교적 의미를 강화했다. 1952년 3월 14일에는 법령 0786호와 1953년 3월 6일 법령 6641호는 해군관련 훈장제도를 도입하여 참전군인의 공훈을 체계적으로 기념하고 보훈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파병 및 임무수행 단계는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이 실제 군사작전으로 구현되는 시기로서 전쟁수행의 제도화 그리고 전투경험의 형성 단계이다. 특히 이시기 정부의 법령을 통한 제도화, 군사작전 전개, 언론담론의 변화 그리고 군인들의 전투경험은 한국전쟁의 정치, 사회 및 문화적 의미도 포함한다. 특히 엘 씨글로(1953.4.1; 1952.2.26; 1952.3.19; 1952.9.2)는 승리와 임무를 강조하며 한국전쟁 참전의 정당화와 영웅화 중심의 서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작전과 성과 중심의 보도로 전쟁을 군사적 성과와 작전중심으로 재현하며 개인의 경험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이중적 특징을 나타냈다.

2-4. 임무 종료 및 귀환단계: 1953년 7월~1954년 1월

1953년 7월 휴전협정체결부터 10월 23일까지 콜롬비아 군은 단계적으로 귀환했다. 이시기 기록물은 전후 보훈정책과 귀환군인의 전후 사회인식 분석의 토대로 작용한다. 특히 ASCOVE, 해군 참전용사회 그리고 ADEVECO의 기록물은 공식기록의 서사를 보완하고 공적서술이 포

착하지 못하는 개인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사료 군을 형성한다. 귀환보고서, 보훈기록 및 통계자료 등 공식기록은 사실을 제공하고, 구술, 회고록, 편지, 사진 등 개인기록은 단일사료에 내재된 편향과 한계를 보완하여 사건의 사실성 및 경험분석 가능성을 제공한다.

참전군의 임무가 종료되는 시점 전쟁담론은 참전군인의 귀환과 전쟁 경험을 중심으로 기억과 보훈담론으로 전환되었다. 엘 씨글로(1953.6.25)는 콜롬비아 정부가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훈장 수여, 추모행사 및 기념제도 운영을 보도했으며, 이러한 제도는 전쟁 경험을 국가 차원의 공식 기억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제이 윈터(1995:78-116)는 전사자 추모, 기념비, 국가의례가 전쟁 경험을 집단기억으로 전환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기념행사, 정기회보, 회고록, 개인 출판, 그리고 정기 모임을 통해 전쟁경험을 지속적으로 재현했다. 특히 ASCOVE는 회보 『Noticias: Héroes Guerra de Corea 1950-1953』를 발행하여 기억의 생산, 유통 및 재해석을 담당했다. 회보는 단순한 소식지가 아니라 참전경험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해석하는 담론적 공간으로 기능했다. 2017년 회보는 회원동향, 협회활동, 후손회와의 협력 그리고 한국관련 소식으로 구성되었다. 회보는 참전용사들을 영웅으로 재현했으며, 전쟁 경험을 현재에도 지속되는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5년 회보에는 한국기업 삼성의 후원, 한국의 경제발전상 및 한국소식을 소개하고, 과거의 전쟁을 현재의 정치와 경제관계로 확장하여 의미화 했다. 2018년에는 ASCOVE 창설 60주년을 기념하여 콜롬비아 주재 한국대사를 초청하여 한반도 통일관련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과거의 경험이 현실정치 속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참전용사회 역시 회보 『El Veterano: Excombatientes Guerra de Corea』를 통해 전쟁기억을 재구성했다. 회보는 해군중심의 전쟁서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5월 발행된 회보에는 알미란테 파디아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기록, 전쟁일지, 한국방문기, 협회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해군회보의 특징은 전투경험의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육군과 달리 전쟁을 기술 및 작전경험으로 강조한다.

이와 같이 국가와 참전용사협회는 한국전쟁 참전을 자유 수호와 국제적 책임수행이라는 영웅적 서사로 기억하고 재현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참전 서사와 상충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참전용사들은 협회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여 주변화 되었다¹⁶⁾. 이사악 바르가스는 자신을 포함 많은 동료들이 정부의 권력기반 강화에 동원되어 이름도 생소한 이국에서 희생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모리스 알브박스(1992:38-52)가 기억은 개인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집단적 틀 속에서 재구성된다고 설명했듯이 참전군인의 전쟁경험은 국가에 의해 영웅화 되어 재구성되거나 이와 다른 이사악 바르가스의 사례는 주변화 되어 비난과 격리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사악 바르가는 다양한 집필을 통해 자신의 전쟁 경험과 기억을 기록해왔다. 그의 활동은 오히려 해외에서 주목받아 2016년 4월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용사회는 회보 『KIVA Canada』에 「해외 참전용사의 한국전쟁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호르헤 이사악의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사를 소개했다. 이사악 바르가스의 사례는 동일한 전쟁 경험이라더라도 어떤 기억은 공식적 기억으로 수용되고 다른 기억은 침묵되거나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전쟁 참전의 기억과 경험은 참전군인 개인차원을 넘어 가족과 후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리안 허시(2012:1-32)는 가족과 후손이 관리하는 전쟁관련 기록물은 후속세대가 한국전쟁과 한국에 대한 인식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특징은 1952년 10월 타운 콜롬비아를 지휘한 하이메 로드리게스(Jaime Rodríguez)대령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대령의 손자 호세 하이메(José Jaime R.)는 조부의 사진, 편지 그리고 발령문서 및 훈장을 소장하고 있

16) Guatavo Zapata, Francisco Bermudez와의 인터뷰(2018.08).

다. 조부의 사진은 전쟁의 일상성과 인간적 측면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며, 지휘관 발령문서, 180고지 탈환, 전쟁부 장관축하서한 그리고 공훈장과 감사패는 가족내부의 애국심과 군인정체성을 강화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실제로 이러한 기억의 전승은 후손 세대의 진로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하이메 로드리게스의 후손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엘리트로서 국가방위에 헌신하고 있다¹⁷⁾. 또한 대령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걱정, 애정 등 인간적인 감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물들은 사실전달을 넘어 참전 군인과 후손의 전쟁에 대한 감정적이며 경험적인 증거를 대표한다.

1953년 7월을 시작으로 콜롬비아군은 단계적으로 귀환했다. 참전군인의 귀환은 단순한 병력 이동이나 군사작전의 종료가 아니라 전쟁경험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전환점이었다. 참전군인의 귀환 시기는 보수와 자유 양당의 갈등으로 정치 폭력사태가 심화된 시기와 중첩되었다. 귀환군인들은 전선의 기억을 유지한 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지속되는 사회로 복귀해야만 했다. 귀환은 폭력과 긴장이 심화된 사회로의 이동이었으며, 사회적 불안은 귀환군인이 전쟁경험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통합하거나 의미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애나 버크(1999:297-332)는 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참전군인의 경험이 귀환 이후 일상적 사회질서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전장에서 체득한 폭력의 정당화 논리와 군사적 규율은 민간사회의 규범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으며, 귀환군인은 전쟁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서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한 전쟁 경험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및 정치적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야기했다. 한국전쟁 종료에 앞서 엘 씨글로(1952.8.11)는 1952년부터 교체부대 귀환군인의 사회복귀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1953년 3월 28일에는 콜롬비아 정부가 4월 귀환 군인들을 소집하여 시민사

17) Jaime Rodriguez와 인터뷰(2018. 08).

회 재적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미 일부 군인은 국내 반정부 시위진압대에 동원되어 치안을 담당했으며, 일부는 정치적 갈등상황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한국전쟁의 경험은 새로운 형태로 재활용되거나 변형되었다.

IV. 맺음말

기존의 콜롬비아 한국전쟁 참전사 연구는 주로 군사사와 외교사 중심의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전쟁의 정책결정과 군사적 수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으나, 전쟁 경험의 사회적 의미와 기억의 형성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식기록, 비공식기록, 개인기록을 포괄하는 다층적 사료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증거사학적 관점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사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특히 1차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증과 기록 유형 간 교차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료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쟁 경험의 구조와 맥락을 해석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이 되었다.

수집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을 생산주체와 시기적 맥락에 따라 파병검토 단계, 정부정책결정 단계, 임무수행 단계, 임무종료 및 귀환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파병검토 및 정책결정 단계에서 반공주의는 국가 정당성 확보와 정치질서 유지의 핵심 이념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동일한 반공 담론은 자유당 세력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구조 문제와 결합되어 재해석되어 동일한 담론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변용되었다. 임무수행 단계에서는 국가와 언론이 구성한 영웅화 중심의 공식서사와 참전군인의 실제 경험사이에 괴리가 존재했다. 공식기록과 언론은 전쟁을 성과와 임무 중심으로 재현하며 참전의 정당성을

강화된 반면, 개인은 감정과 경험에 기반 하여 전쟁을 기억했다. 임무종료 및 귀환 단계는 한국전쟁 참전이 단순한 군사적 사건의 종료가 아닌 기억의 사회적 재구성 과정을 의미했다. 국가의 보훈정책과 기념제도, 언론담론, 그리고 참전용사회의 활동은 상호작용하며 전쟁경험을 국가적 기억으로 정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참전용사회 회보는 기억의 재해석을 매개하는 담론공간으로 작동하며, 개인의 기억을 집단기억으로 전환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을 둘러싼 콜롬비아 사회의 인식과 담론은 단일하지 않으며, 정치세력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고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학술논문

- 김기봉(2018). 「역사와 진리 - 역사 쓰기와 역사 만들기」, 『한국사학사학보』 제38호, 268-275.
- 김택현 역(2002).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21-45.
- 이승휘(2006). 「해외소재 한국관련 수집자료의 정보공유를 위한 활용 방안」, 『세미나자료 해외소재 한국관련 수집기록물 정보공유 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25-46.
- 차경미(2006).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전쟁』, 파주: 한국학술
- Alexander. Jeffrey C., Ron Eyerman외(2004). *Cultural Trauma and Collective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tehortúa Cruz, Adolfo León(2008). “Colombia en la Guerra de Corea,” *Folios*, No.27, 63-76.
- Armada Nacional de Colombia(1993). *Historia Naval de Colombia*, Bogotá: Armada Nacional, 214-220.
- Bourke Joanna(1999). *An Intimate History of Killing: Face-to-Face Killing in Twentieth-Century Warfare*, London: Granta Books, 297-332.
- Camargo Meléndez, David Juan(2015). “Colombia y Su Participación en la Guerra de Corea: Una Reflexión Tras 64 Años de Iniciado el Conflicto.” *Historia y Memoria* 10, 199-239.
- Coleman Bradley Lynn(2005). “The Colombian Army in Korea, 1950-1954,”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69, No.4, 1137-1172.
- Cook Terry(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Gómez Pretel, William and German Castro Triana(2020). “Colombian

Navy and its Contribution to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1951-195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3,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181-188.

Halbwachs, Maurice(1992).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8-52.

Hirsch Marianne(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32.

León Cabrera, Gina Catherine(2024). “Testimoniar una Guerra Ajena, 1958-2022:Prácticas de Memoria de Excombatientes y Descendientes Colombianos en la Guerra de Corea,, *Historia Crítica*, No.92,97-117.

O’Toole M. James and Cox Richard J(2006). *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20.

Puyana García, Gabriel(1993). *¡Por la Libertad... en Tierra Extraña!*, Bogotá: Banco de la República.

Ramsey Russell(1967). “The Colombian Battalion in Korea and Suez,”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Vol. 9, No.4, 570-575.

Ruiz Novoa, Alberto(1956). *El Batallón Colombia en Corea, 1951-1954*, Bogotá: Imprenta Nacional, 15-30.

_____ (1978). “Colombia en Corea,” *Revista Nueva Frontera*, 7.

Schellenberg Theodore R(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25.

Thompson Paul(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3rd ed.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Tosh John(2015). *The Pursuit of History*, 6th ed.London: Routledge, 164-187.

Valencia Tovar, Álvaro(1992). *Testimonio de una Epoca*, Bogotá:

Planeta. 97-103.

Valencia Tovar. Álvaro, Jairo Sandoval Franky(2001). *Colombia en la Guerra de Corea: La Historia Secreta*. Bogotá: Planeta, 228.

Winter, Jay(1995).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The Great War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8-116.

Yin, Robert K(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Los Angeles:Sage, 126-145.

2. 정부문서 및 기록물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2006). *Manual de Organización de Fondos Acumulados*, Bogotá: AGN, 12-25.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2016). *Plan Institucional*, Bogotá: AGN, 5-7.

República de Colombia(1951). *Documentos sobre la Participación de Colombia en la Guerra de Corea*, Bogotá: Imprenta Nacional, 12-18.

Archivo Nacional de Colombia(1950.9.29).“Quinto Período de Sesiones: Primera Comisión.”

Archivo Nacional de Colombia(1951.7.13).“To: Stavropoulos, Pusan.”

Archivo Nacional de Colombia(1951.7.24).“Comments Received from Unified Command”.

Archivo Nacional de Colombia(1951.7.30). “Proyecto Revisado.”

Archivo Nacional de Colombia(1951.9.17). “Regulations United Nations Service Medal Korea.”

Archivo Nacional de Colombia(1951.9.25). “United Nations Service Medal Regulations.”

3. ASCOVE 및 기관자료

ASCOVE. *La Organización del Batallón Colombia*, 1-3.

ASCOVE(2009). *Los Héroes del Olvido*, Bogotá: ASCOVE.

ASCOVE(2015). *Noticias: Héroes Guerra de Corea 1950-1953*, Edición 6.

ASCOVE(2017). *Noticias: Héroes Guerra de Corea 1950-1953*, Edición 10.

ASCOVE(2018). *Noticias: Héroes Guerra de Corea 1950-1953*, Edición 6.

ASCOVE. *Lista de Personal del Batallón Colombia Muerto en la Acción de Guerra.*

ASCOVE. *Lista de Personal del Batallón Colombia Desaparecidos en Acción.*

ASCOVE. *Lista de Personal del Batallón Colombia Prisionero y Canjeado.*

ASCOVE. *Lista de Personal del Batallón Colombia Herido en Acción.*

ASCOVE. *Lista de Personal del Batallón Colombia Condecorados por los Estados Unidos.*

ASCOVE. *Actividades Principales del Batallón “Colombia” desde su Creación hasta el 27 de Julio, Día de la Firma del Armisticio.*

4. 해군참전용사회 자료

El Veterano: *Excombatientes Guerra de Corea*(2008.5).

El Veterano: *Excombatientes Guerra de Corea*(2012.12).

El Veterano: *Excombatientes Guerra de Corea*(2013.9).

Tripulación de la Fragata ARC “Almirante Padilla” de 1951(2004),1.

Tripulación de la Fragata ARC “Capitán Tono” en 1952(2004), 2.

Tripulación de la Fragata ARC “Almirante Brión” en 1953(2004), 3.

Núñez Gámez, Víctor(1997). “Actividades de la Armada Nacional de Colombia en el Conflicto de Corea,” 1-4.

Núñez Gámez, Víctor(1997). “Colombia en la Guerra de Corea,” 1-2.

Núñez Gámez, Víctor(1997). “Relato Actividades Soldado ‘Libardo Jurado

Corte’,” 7-8.

Núñez Gámez, Víctor(1998). “Resumen Historia-Testimonio de Episodios Ocurridos en la Fragata ARC ‘Almirante Padilla’ en Korea,” 1-3.
KIVA Canada, Heritage-Unit(2016.4). Newsletter: Korean War.

5. 구술자료 및 인터뷰

인터뷰: Orlando Bernal Hernando Villegas(2018.8).

인터뷰: Gustavo Zapata(2018.8).

인터뷰: Francisco Bermúdez(2018.8).

인터뷰: Vagas Isaac(2018.12).

인터뷰 ADEVRECO, Jaime Rodríguez(2018. 8.25).

6. 신문 및 정기간행물

(1) El Tiempo

El Tiempo(1950.6.25). “Los EE.UU. Acusan a Rusia de la Injusta y Sorpresiva Agresión.”

El Tiempo(1950.6.30). “Mensaje a Truman Envía el Pte. Ospina.”

El Tiempo(1950.7.2). “La Guerra Coreana Puede Aumentar la Demanda de Café.”

El Tiempo(1950.7.6). “Inquietud en los Países de Europa ante el Poder Comunista en Corea.”

El Tiempo(1950.7.7). “Corea y la Solidaridad Americana.”

El Tiempo(1950.7.7). “A Propósito de la Crisis Internacional.”

El Tiempo(1950.7.14). “La Economía y la Guerra.”

El Tiempo(1950.7.21). “Al Margen de la Lucha.”

El Tiempo(1950.7.25). “La Batalla Económica.”

El Tiempo(1950.7.29). “La OEA se Adhiere en Forma Total a la Decisión de la ONU.”

- El Tiempo(1950.10.22). “Lo que Nos Dejó Truman: La Nueva Política en Asia.”
- El Tiempo(1950.12.26). “Batalla de Democracia.”
- El Tiempo(1950.12.30). “Creado Ayer el Batallón de Infantería que Irá a Corea.”
- El Tiempo(1951.6.25). “Los Soldados de Dieciséis Naciones Luchan contra el Comunismo.”
- El Tiempo(1951.8.5). Gabriel Puyana, “El Batallón Colombia Está ya en el Frente de Batalla.”
- El Tiempo(1951.10.5). “Entró en Acción en el Frente de Corea el Batallón Colombia.”
- El Tiempo(1951.10.24). “Cómo Murieron los Primeros Soldados del Batallón Colombia.”
- El Tiempo(1951.10.30). “Las Siete Colinas de Kumsǒng las Tomaron los Colombianos.”
- El Tiempo(1951.11.3). “Empieza a Cubrirse de Nieve el Frente de Batalla en Corea.”
- El Tiempo(1951.11.9). Gabriel Puyana, “48 Horas de Combate en Medio de la Montaña.”
- El Tiempo(1952.1.10). “Nombrado el Nuevo Comandante del Batallón Colombia.”
- El Tiempo(1952.2.6). “Tenemos una Política Exterior.”
- El Tiempo(1952.2.8). “El Primer Relevado del Batallón Colombia se Embarca.”
- El Tiempo(1952.2.12). “Cómo Murieron los Primeros Soldados del Batallón Colombia.”
- El Tiempo(1952.7.23). “Con Acción Heroica se Iniciaron los Relevos.”
- El Tiempo(1954.8.15). “Homenaje a los Veteranos de Corea.”

(2) El Siglo

El Siglo(1950.6.26). “Armas Norteamericanas para la Guerra de Corea.”

El Siglo(1950.6.29). “La Quinta Columna.”

El Siglo(1950.7.27). “Colombia Respalda la Política de los EE.UU.”

El Siglo(1950.7.28). “La Posición de Colombia.”

El Siglo(1950.9.21). “La Presencia de Colombia.”

El Siglo(1952.2.26). “Condecoraciones.”

El Siglo(1952.3.10). “El Honor Nacional en Corea,” 3.

El Siglo(1952.3.19). “Condecorado el Comandante del Padilla.”

El Siglo(1952.3.31). Janet E. Hohman, “Colombia y Corea.”

El Siglo(1952.5.22). “Por los Ideales de Bolivia.”

El Siglo(1952.5.30). “Memoria de Héroe.”

El Siglo(1952.6.27). “Una Brillante Actividad de la Fragata.”

El Siglo(1952.7.23). “Los Colombianos Cumplieron Heroicamente su
Tarea.”

El Siglo(1952.9.2). “Honores Póstumos a los Soldados Caídos en Corea.”

El Siglo(1952.12.7). “Heroica Acción de un Colombiano en Corea.”

El Siglo(1953.1.24). “El Riguroso Invierno no Detiene a las Tropas en
Corea.”

El Siglo(1953.4.1.). “Condecoraciones.”

El Siglo(1953.5.16). “El Fin de la Guerra de Corea no es Inmediato.”

El Siglo(1953.5.28). “Veteranos de Corea Serán Ocupados en Nuevas
Actividades.”

El Siglo(1953.6.25). “La Misión Nuestra es Defender a la Patria.”

El Siglo(1953.7.17). “El Más Alto Espíritu de Cooperación Distingue a
las Tropas Colombianas.”

(3) Eco Nacional

Eco Nacional(1950.7.1). “La OEA Respaldó la Actitud de las Naciones Unidas.”

Eco Nacional(1950.8.4). “Toda América.”

Eco Nacional(1950.11.3).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se Dirige al de EE.UU.”

Eco Nacional(1950.11.15). “Colombia Entregó la Oferta de un Batallón para Corea.”

Eco Nacional(1950.11.23). “Persecución Religiosa en Corea.”

Eco Nacional(1950.12.17). “La Ley de la Emergencia.”

Eco Nacional(1951.4.24). “Política Externa e Interna.”

Eco Nacional(1951.10.4). “Voluntarios para Corea no Faltan.”

Eco Nacional(1951.11.15). “Los Soldados Colombianos han Rubricado con Sangre su Amor a la Patria y a la Libertad.”

Eco Nacional(1952.7.5). “Por la Seguridad del Continente: Total Cooperación Militar con los EE.UU.”

Eco Nacional(1953.1.15). “Van Fleet Exalta y Elogia al Batallón Colombia por Heroica Acción en Corea.”

Eco Nacional(1953.4.7). Ortiz González, “Soldados Colombianos.”

(4) El Espectador

El Espectador(1950.6.25). “Un Hombre de Buena Voluntad.”

El Espectador(1950.7.3). “Ausencia y Presencia.”

El Espectador(1950.7.9). “El Mundo en la Balanza de la Guerra.”

El Espectador(1950.8.21). “Armamentos y Punto IV.”

El Espectador(1950.8.29). “Un Debate Indispensable.”

El Espectador(1950.9.9). “En Corea y Después Corea.”

El Espectador(1951.5.31). “Una Colaboración Coja e Incompleta.”

El Espectador(1951.7.12). “Carta de un Colombiano en Corea.”

El Espectador(1951.7.12). “Entrenamiento para la Guerra: Un Militar Colombiano en Corea.”

El Espectador(1953.10.23). “El Regreso del Batallón Colombia,” 1.

(5) 기타 신문 및 정기간행물

Diario Oficial(1951.5.30). “Disposición sobre las Fuerzas Militares al Servicio de las Fuerzas Armadas de las Naciones Unidas.”

Diario Oficial(1951.6.22). “Cumplimiento a una Resolución de la Asamblea de las Naciones Unidas.”

Diario Oficial(1951.8.28). “Se Prohíbe la Exportación y Reexportación a los Países Comprendidos en la Zona de Influencia Soviética.”

Diario Oficial(1952.3.14). “Se Confiere la Condecoración de la Orden Almirante Padilla.”

Diario Oficial(1952.12.16). “Se Honora la Memoria de un Personal de Tropa.”

Diario Oficial(1953.3.6). “Se Concede un Permiso.”

Diario Oficial(1953.3.6). “Se Confiere una Condecoración.”

Revista Semana(1950.7.1). “¿La Tercera Guerra? El Paralelo 38,” No.193, 12.

Revista Semana(1950). “El Peligro de la Guerra Mundial.”

Revista Semana(1950.8.12). “La Guerra en Asia: Defensa Continental,” No.199, 14-20.

Diario de Colombia(1953.2.12), “Arroz en Corea.”

El Liberal(1950.10.3). “Colombia se Incorpora a la Flota de Guerra.”

El Liberal(1950.11.12). “Inflación de Guerra.”

Jornada(1950.12.9). “Propuesta para la Paz.”

Jornada(1950.12.11). “Preparado el Contingente de Mil Hombres para

Corea.”

Jornada(1950.12.13). Enrique Cuéllar Vargas, “Tragedia Universal.”

Jornada(1951.1.21). Salvador Stella, “De Corea a la Provincia.”

El Sábado(1950.9.9). Higgins Margaret, “La Guerra de Corea.”

El País(1950.10.19). “La Razón de la Fuerza.”

El País(1950.10.22). “El Envío de Tropas a Corea.”

El País(1950.9.22). “La Posi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Revista Javeriana(1952.7). “Política Internacional,” Tomo XXXVIII,
No.186, 2.

❖ ABSTRACT

Reinterpreting Colomb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through Evidence-Based
Historiography

Cha, Kyung Mi
Ulsan University

This study reinterprets Colomb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from an Evidence-Based History perspective, utilizing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archival records.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have primarily focused on military and diplomatic history, this research examines records produced by government agencies, newspapers, vetera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participants between June 1950 and July 1953. By analyzing their production contexts and discursive characteristics, the study reconstructs the Korean War as a historical process intrinsically linked to Colombia's deployment experie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anti-communism served as a key ideological framework during the deployment review and policy decision-making stages, thereby reinforcing state legitimacy and political order. During military operations, official records and media reports emphasized military achievements and mission performance. In contrast, personal records highlighted lived experiences such as fear, survival, exhaustion, and comradeship. Following the war, veterans' policies, commemorative practices, and veterans' organizations collectively transformed wartime experiences into national memory.

The study argues that Colomb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military and diplomatic event, but also as a complex process of discourse formation and memory construction.

Keywords: Colombia, Korean War, Archival Records, Collection and Analysis. Historical Reinterpretation

- 논문투고일 : 2026. 05. 04
- 심사완료일 : 2026. 06. 05
- 게재확정일 : 2026. 06. 05

